

양안을 통해 본 鎭川郡의 행정구역

임 용 한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1. 서론

본 연구는 한말 - 일제하 진천군의 지방사회의 변동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양안 상에 등장하는 지명을 현재의 진천군의 지명과 대조하여 한말 진천군의 행정구역을 복원하고, 한말 행정제도의 특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읍지와 地誌, 고지도류가 있다.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런 자료에는 대개 군현에 속한 面과 里名이 기재되어 있다. 고지도의 경우도 면리, 호구, 田結 통계를 부기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로서는 면리의 경계와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지도의 경우도 축적과 지형이 분명하지 않아 주요 지형지물과 대략적 위치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경계와 실태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里와 洞의 경우는 더 심하여 읍지나 지지의 경우는 읍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몇 리가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만 표기하였다. 따라서 면리에 속한 마을과 면리의 행정구역, 각각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실 면리의 정확한 위치와 행정구역, 규모, 소속촌락은 면리제의 기능, 특징을 논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면리제 연구가 지닌 애로사항이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면리제에 대한 연구는 ① 면리제의 형태와 구조적 특징 ② 면리의 기능 ③ 면리 행정의 담당기구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①의 경우 조선전기의 방위 면제에서 조선 후기의 자연촌락에 기초한 면제로의 변화, 里制의 발달과 자연촌락에 기초한 里制의 형성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면리의 실제경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통해 추론했다는 한계가 있다.

②의 경우 지방행정, 수취, 호구관리 등에서 조선후기 면리의 기능이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 생산력 발전 및 인구증가에 의해 자연촌이 성장, 행정단위가 하부구조까지 확대되었다는 관점과 조선후기 사회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제도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조직력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7세기 이후로 면리제가 확대, 발전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특히 16, 17세기 이전에는 사족들의 세력범위, 지배지역이 면리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연촌락에 기초한 면리제의 발전을 사족 혹은 향리 세력에 의해 운영되던 지방행정망을 국가권력이 합리적으로 재편해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③의 경우는 조선후기 사회분화와 신흥세력의 등장, 지방행정 및 지방사회 운영층의 교체라는 측면에서 面任, 里任의 구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사회모순과 개혁에 대한 이들의 행동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부분 역시 ②의 연구와 조응하여 지방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구성된 면리 행정구역이 자연촌락 단위로 재편되면서 향촌사회의 운영층과 세력

범위에도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같은 연구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현에서의 면리의 행정구역의 실체와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연구의 구체화와 심화를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면리 행정구역에 지방세력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던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 어떤 형태였느냐는 것은 조선 시대 향촌세력과 국가통치와의 관계, 지방세력의 권력과 존재형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里의 행정구역을 파악할 경우 유력 사족이 자기 근거지를 중심으로 광역의 넓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느냐, 자신의 거주촌락을 里와 같은 개별 행정단위로 특화시켜 주변촌락과 차별화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사족의 권력과 권력의 역사적, 사회적 존재형태는 크게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가 사실상 지방세력의 일정한 지배를 인정하는 형태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지방세력의 특권이라는 것도 국가지배와의 타협한 특혜적 혜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세적 지방제도의 한계가 무엇이고, 근대의 지방행정제도를 통해 어떠한 변화와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광무 양안은 일제에 의한 1914년의 면리 통합이 발생하기 13년 전에 작성한 양안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시기의 군현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¹⁾ 조선왕조에서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개혁해 온 군현제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면리의 복원 방식과 그 결과

(1) 자료이용과 복원방식

양안을 이용하여 진천군 내부의 행정구역과 촌락을 복원하기 위하여 먼저 광무 양안에 등장하는 지명을 데이터베이스로 통계처리 하였다. 그 중에서 지명만을 골라내면 약 1320개의 지명이 등장한다.²⁾

이 지명을 『진천군지』,³⁾ 고지도(『1871年 郡縣地圖』, 『海東地圖』, 『廣輿圖』 등) 및 1890년대에 제작한 『舊韓末韓半島地形圖』,⁴⁾ 1914~18년에 제작한 『朝鮮五萬分之一地圖』,⁵⁾와 진천군 상산고적회에서 진천군의 옛지명을 수합, 정리한 『진천군유래』, 『한국지명총람』⁶⁾,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작성한 『文化遺蹟分布地圖』⁷⁾과 대조하였고, 그래도 찾을 수 없는 지명은 현지 답사와 상산고적회 회원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복원하였다.

1) 광무개혁기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지방제도 개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역사학보』105, 1985).

2) 간혹 連三坪과 같이 하나의 지명이 두, 세 개의 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북변면 周牛坪, 走牛坪 같이 동일한 지명을 한자 표기를 달리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통계 여건상 이런 경우를 일일이 수정하거나 제외하면 다른 통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 전체 통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도 살려 놓았다. 이를 감안하면 정확한 총 지명수는 1310개 내외가 될 것이다.

3) 鎭川郡誌編纂委員會, 『鎭川郡誌』, 1994.

4) 남영우 편저, 『舊韓末韓半島地形圖』, 成地文化社,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景仁文化社

5) 조선총독부, 1918,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3(충북편)』, 1970.

고지도류는 축적과 표기 지명의 수가 적어 의외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호구와 전결, 주요 리명을 기재한 부분이 조선 후기부터 한말까지의 면리제의 변동사항을 추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舊韓末韓半島地形圖』와 『朝鮮五万分之一地圖』에는 고지도류에는 없는 옛 자연촌락의 지명이 많이 남아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지도에는 서로 빠진 지명이 있어 두 지도를 함께 참조해야 했다. 특히 『舊韓末韓半島地形圖』는 지도로서의 상세함과 완성도는 『朝鮮五万分之一地圖』에 못미치지만 1914년 통폐합 이전의 리명이 기재되어 있고 자연촌락의 지명이 보다 풍부하게 남아 있어 촌락 및 리의 위치와 경계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양안에 등장하는 지명은 근 50%가 ○○谷, ○○坪과 같은 명칭들인데, 이 두 지도는 촌락명칭을 위주로 기재하고谷이나 평야의 고유명칭은 거의 기재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지명의 복원에는 『文化遺蹟分布地圖』가 큰 도움이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답사를 통해 해결하였다.

지명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사라진 경우라도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양안은 천자문의 순서를 기준으로 字丁을 할당하고 자정단위로 필지에 번호를 매겨 기재한다. 이때 字丁 단위 안에서는 필지와 지역을 서쪽에서 시작하여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기재하였다. 그러므로 전후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고 중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빠진 위치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곡면 ‘孰’字丁의 경우 양안에는 礪村坪 ⇨ 鶴洞 ⇨ 桑林坪 ⇨ 大幕前坪 ⇨ 大幕酒店 ⇨ 龜灘洞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礪村과 桑林坪은 이월면 송림리 숫돌말과 상림들로 현재도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鶴洞은 송림리 독지미(독징이)⁸⁾이며 大幕前坪과 大幕酒店도 이월면 장양 장터로⁹⁾ 역시 위치가 정확히 확인된다. 이를 지도로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이 지명에서는 오직 龜灘洞의 위치만이 불명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숫돌말에서 시작하여 360°로 빙 돌아온 지점의 끝부분, 지금의 송림교 남단에서 송현 사이 지역임이 분명하다.

7) 忠北大學校 博物館·鎭川郡, 『文化遺蹟分布地圖(鎭川郡)』, 2001.

8) 『진천읍유래』 이월면 송림리 학동마을편, 『한국지명총람 3』 p.493.

9) 위의 주.

이처럼 전후 지명이 확실한 경우에는 ○와 ○ 사이, ○○ 부근이라고 지역을 추정하여 복원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양안의 字丁은 5결 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역에 꼭 구애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도 토지가 5결을 초과할 경우 字丁이 바뀐다. 이처럼 한 지명이 여러 자정에 걸쳐 있고, 앞의 지명을 알 수 있고 다음 지명이 미상일 때는 전후 지명을 연결하여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명과 자정이 함께 바뀔 때, 다음 자정의 지명이 앞의 지명과 인접지역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자정과 자정의 상관관계는 시계바늘 방향으로 기재한다는 자정 내부의 필지의 기재순서와 같은 일관된 법칙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추정복원이 불가능하였다.

자정 내부의 필지를 기재할 때 시계바늘 순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해도 지역과 지형에 따라 이동하는 범주가 다르다. 즉 인구와 경작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균일하고 좁은 범주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넓은 범위로 움직인다. 또 산악지대에서는 촌락과 경작지가 더욱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경작지가 부족하므로 5결을 채우기 위하여 방향의 일관성이나 이동범주가 변하기도 하였다.

그런 사례로 백곡면 廣字丁을 들 수 있다.

城垈坪(성터) ⇨ 城垈洞北邊 ⇨ 基谷(성대리 터골 성대 동남 2km) ⇨ 墨坊坪(먹방이들, 성대 북쪽 2km) ⇨ 馬谷(말골 성대 동북쪽 2km)

백곡면은 진천군 서북부 지역으로 대부분이 산지이다. 여기서의 전체적으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회전 반경이 주변 2km 지역으로 위에서 본 이월면 송림리의 경우보다 크게 이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촌락과 전결이 밀집하여 분포하지 못하므로 원형에 가까운 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위치를 추정하여 복원할 때는 그 전후의 지명이 확인되고, 그 사이에 지형적으로 합당한 지역이 있을 때에만 추정하였다.

(2) 양안 표기지명의 특징과 분석

이상과 같이 검증한 결과 약 1320여개의 지명 중 1097개(83%)의 지명이 확인 내지는 위치추정이 가능하였다.

가. 양안 상의 지명과 현재 지명과의 관계

양안의 지명과 진천의 전통지명 및 현대지명을 검토한 결과 지명은 보수성과 변용성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천의 거의 모든 마을이 한자식 지명과 한글식 지명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지명을 보유하고, 변화도 복잡하다. 지명이 변하는 경우도 夢村이 꿈말이 되고 다시 구말로 변하는 경우처럼 한자의 차음이나 이두식 표기로 인해 다양해진 경우도 있고, 주민의 변동, 행정구역 개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의 지명과 현재의 지명유래를 비교한 결과 이같은 잦은 변화와 다양성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구전으로 확인되는 지명이 의외로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래가 오래된 마을의 한자지명은 대개가 양안에서 확인된다.¹⁰⁾ 다만 양안의 지명표기는 礪村(숫돌말), 瓦家村(기와집말), 鵲谷(까치골), 甕井(독우물)과 같이 한역한 경우도 있고, 九非內, 舍廊坪과 같이 이두식으로 표기한 곳도 있다. 비율적으로는 한역한 경우가 많다.

지명의 유래나 그 지명을 사용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는 구전에 간혹 착오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新垌, 新村 등이다. 양안에서도 이런 지명은 여러 개가 발견된다. 그 중에는 한국전쟁 이후, 혹은 근대에 새로 개척한 정착촌이거나 이주민을 통해 형성된 마을이라고 설명하는 마을이 양안 상에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이런 지역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주민이나 정착촌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어서 늘 정착촌이 자리 잡았다가 삶이 안정이 되면 폐촌이 되거나 격동기를 만나면 다시 정착촌이 들어서는 것을 반복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외에도 지명 유래에 간혹 오류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문백면 옥성리 玉山은 행정구역 개편 때 정한 지명이라고 하나 이미 양안에 표기되어 있어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월면 내촌리의 당골은 내당골이 변한 것이라고 하는데, 『舊韓末地形圖』에는 이곳이 外堂으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에는 만승면에 속한 內堂이 별도로 있었는데, 城隍堂이라는 지명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성황당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문백면 옥성리 바사리는 문백면 소재지로 임진왜란 때 왜군의 말을 죽여 馬殺里고 했다가 변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양안에는 馬殺里가 없고 馬勒峴이란 지명이 있다.

양안의 지명복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 명기할 사실은 아주 작은 산꼭까지도 호구와 전결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의 문백면 계산리 호내기 동쪽 1km 지점에 있는 청석골은 문백면 계산리 번개들과 같은 字丁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은 단지 2필지이며 면적도 45負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중 한필지는 거리도 떨어져 있는 태랑역의 역토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산간에 역토를 둔 것은 역의 대우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의 외지고 토지가 적으므로 이 지역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시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양안에 기재된 전결의 등급과 면적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나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적, 지리적으로는 깊은 산꼭, 호구와 전결이 아주 작은 지역까지도 국가가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토지와 인구에 대한 관리가 일반적인 예상보다도 철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나. 촌락의 명칭과 행정구역

里, 洞, 垌, 村과 같은 명칭이 붙은 자연촌락은 확인율이 높았다. 특히 里와 村은 거의 확인할 수 있었다. 촌락 중에서 洞의 확인율이 낮은 이유는 洞이란 명칭이 붙은 곳이 많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고 외진 마을이 洞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평야, 谷은 촌락에 비해 파악도가 떨어진다. 기타 지역은 주로 寺, 橋, 亭子, 店 같은 특정 건축물을 기준으로 표기한 지역이다. 이곳도 坪, 谷과 유사한 파악율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미확인 지역은 저수지로 인한 수몰지역, 공단,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에서 발생했다.

10) 이월면 송림리 鶴洞은 독지미라고도 하는데, 각각 유래가 다른 전설이 있다. 그런데 양안에 이미 鶴洞으로 나와 鶴洞의 유래가 오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사곡리 沙地마을에 대해서는 풍수에서 유래한 獅止라는 설과 沙地라는 설이 있다고 하는데, 양안에는 沙地로 기록되어 있다.

평야가 넓고 경지정리가 잘 된 지역에서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평야의 명칭만이 남고, 과거의 자잘한 지명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지명 종류별 분포 및 파악율

명칭	수	미확인 수
里	55	2 (3.6)
洞	158	26 (16.5)
村	24	3 (12.5)
坪	692	130 (18.8)
谷	109	26 (23.9)
垌	136	16 (11.8)
기타	146	17 (11.6)

*()안은 %

자연촌락은 里, 洞, 村, 垌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垌은 里, 坪 등의 지명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지명은 일상적인 지명은 아니고, 里나 洞 내부, 평야 주변에서 가옥밀집 혹은 가옥이 있는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양안에서 사용한 지명이라고 생각된다. 간혹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에는 가옥이 밀집하거나 존재하고 있다.

里, 洞, 村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양안에 등장하는 지명을 보면 행정구역명으로서의 里와 촌락명으로서의 里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 진천군 里의 변화

구 분	1872年 郡縣地圖의 里	1901년 광무 양안에 里라고 표기한 지역	1914년 면리 통합당시의 里
덕문면	上德, 次上, 次下, 中里, 長尺, 山直, 上加, 中加, 下加, 石灘	上德里, 次上里, 中里, 山直里, 上加里, 中加里, 下加里, 石灘里, 新垌里	上德, 次上, 次下, 中里, 長尺, 山直, 上加, 中加, 下加, 石灘斗得 新垌 牛里
초평면	通洞, 新坪 上永 下永 陽村 芝田 農村 夫昌 梅山 竹亭 水門 九星 漁隱	九星里, 夫昌里, 芝田里, 挽斗南里	通洞, 新坪 上永 下永 陽村 芝田 農村 夫昌 梅山 竹亭 水門 九星 漁隱 榭谷, 金汗, 仙巖, 三峰, 鳳巖, 龍洞, 三仙, 上洞 竹峴 生石 蓮村 小島坪 下里 畫岩上里 畫岩下里, 斜山 生八三峙

위의 표는 『1872년 지방지도』에 표기한 里의 명칭과 양안에 표기한 지명 중에 里로 표기된 지역, 그리고 1914년 면리 통합 당시의 里(또는 마을명)을 비교한 것이다. 『1872년 지방지도』의 지방지도에는 면마다 대표적인 하부의 촌락명을 작은 글씨로 써 놓았다. 여기에 里라고 부기하지는 않았지만 면 하부 행정단위로서 里名을 써 놓은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마을들이 1758년(영조 34) 경에 작성한 『輿地圖書』에는 면의 하부행정구역인 里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현지도』 단계에서는 면마다 里가 2-4개 정도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과 30년 후에 작성된 양안에서는 里라는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덕문면의 경우를 보면 행정구역으로서의 里와 양안에 등장하는 자연촌락으로서의 里 명칭이 거의 일치한다. 단지 『군현지도』에 보이는 次下里가 없고, 대신 新垌里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초평면으로 가면 사정이 전혀 달라진다. 양안에는 1914년 면리통합 당시의 지명이 대부분 등장한다. 그러나 『군현지도』에 있는 10개의 里 중에서 단지 3개 지역만이 里라는 명칭을 띄고 있다. 通洞里는 上通과 下通이라는 분리된 지역으로 나타난다. 上永, 下永, 陽村, 竹亭¹¹⁾, 水門, 漁隱은 洞里 표시 없이 단독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農村은 발견되지 않고, 梅山은 梅山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 竹井은 竹井과 竹井洞이란 두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반면에 양안에 등장하는 挽斗南里는 『군현지도』는 물론 다른 자료나 지도에 일체 나타나지 않는데, 양안 상으로 보아도 가옥이 4호에 불과한 아주 작은 小村이다.

덕문면과 초평면은 서로 대립되는 사례를 보여주는데, 덕문면의 경우는 행정구역으로서의 里라는 명칭이 마을명에도 거의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초평면에서는 70%의 지명에서 행정구역명칭이 무시되어 있고, 행정구역으로서의 里와 무관한 촌락에서도 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초평면과 덕문면 사례는 서로 극단적인 경우로 다른 지역은 이 두 지역의 중간형태를 띤다. 이것은 행정구역으로서의 里가 관습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통일적이고 일관된 혹은 도호부, 군현의 명칭과 같이 법제화된 규정은 아직 지니고 있지 않은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里, 洞, 村의 의미를 좀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 이 명칭을 사용한 지역의 토지와 호구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¹²⁾

표 3 동리 명칭별 현황 단위(정보)

구분	수	토 지					호	
		전	답	계	답비율	평균	계	평균
里	55	548.9	896.7	1445.6	62.0	26.3	1655	30
洞	158	799.9	1062.9	1862.8	57.1	9.1	2508	15.8
村	24	181.8	245.3	427.1	57.4	17.8	464	19.3

里라는 명칭이 들어간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토지규모와 호구에서 특별한 우위를 보인다. 토지의 평균면적은 里 지역이 26.3정보로 9.1정보에 불과한 洞 지역보다 3배 가까이 높다. 평균 호수도 2배이다. 전체 경지 중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도 里가 가장 높다. 진천

11) 양안에는 竹井으로 표기되어 있다.

12) 양안에는 남변면의 靑巨里와 靑巨里坪, 甕井里와 甕井前坪, 甕井坪과 같이 같은 지명임에도 洞里와 坪을 나누어 표기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촌락명칭이 들어간 坪, 垌까지 포함하였다.

군 전체의 전답 비율은 밭이 34.1%, 논이 65.9%이다.¹³⁾ 양안은 강변의 평야지역까지 포함한 통계이므로 촌락 주변 지역의 논 비율이 전체 비율보다는 낮은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은 전체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밭 지역이 전반적으로 그 지역별로 인구가 밀집하고 토지가 충분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4에서 보듯이 洞은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하다. 이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되어 있지만, 진천의 경우도 洞은 지역 편차가 심해서 북변면에는 1개 동 밖에 없고, 산악지역인 백곡에만 무려 75개소, 만승면에 29개소가 위치한다. 기타 면에는 20개 미만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동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방동면 花城洞, 永新洞, 초평면 竹亭洞 등은 지역의 중심이며 里를 형성하는 지역이지만 洞이라는 지명을 띠고 있다.

촌은 24개소 밖에 없지만 좀 특별한 형태를 보여준다. 북변면의 沙尾村, 甕岩村, 皮村, 초평면의 陽村, 蓮村, 행정면의 槐亭村, 소담면의 夢村, 만승면 瓦家村 등은 촌락의 유래도 오래되고 토지와 호구수도 많으며, 다 里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중심이 되는 촌락이다. 이런 지역은 행정구역명칭과 무관하게 고유의 명칭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천의 중심이며, 가장 비옥하고, 대토지소유자의 토지도 많은 북변면에 이런 촌락이 많은데, 이 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좀 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자연취락을 형성하기 어려운 특수한 지역에 村名이 붙어 있다.

표 4 村의 명칭과 분포

면	村名
북변면	沙尾村, 甕岩村, 皮村
초평면	陽村, 蓮村
백락면	新村
행정면	槐亭村, 汝亭里下村, 池九洞上村, 池九洞上村
백곡면	大明洞下陰村, 陽村, 鶴洞上村
이곡면	山直村, 書院前村, 礪村
만승면	瓦家村, 店村, 土哭否村
월촌면	吉馬峴村, 內斗村, 北上月村, 上月村, 전頭村
소담면	夢村

백곡면의 大明洞下陰村은 현재도 숲 굽는 공장과 10여호 만 있을 정도의 산촌이다. 그 외 山直村, 書院前村, 店村, 土哭否村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지역에도 村이라는 명칭이 붙지 않는 곳도 많아서 촌이라는 명칭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里, 洞, 村이라는 지명은 나름대로 관행적, 법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행정구역으로서의 里의 중심이 되는 자연촌락이 里라는 명칭으로 기재된 경우도 많다. 洞은 비교적 작고 산악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촌은 전통이 있고, 오래 관행으로 불려온 지역이 여전히 촌이라는 명칭을 고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많고, 일관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직도 지방행정의 최하부구조는 행정구역으로서 확고한 위상과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

13) 최윤오, 「진천군의 토지소유와 농민층의 동향」, 『2002 중원문화연구소 춘계학술대회발표문』, p.24.

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양안을 통해 본 한말 행정구역의 특징

(1) 진천군의 面の 구획과 특징

조선시대의 면리는 지방행정구역의 최하단위이다. 里는 자연마을과 명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행정구역으로서는 面이 최하 단위라고 하겠다. 면은 고려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15~16세기에 동서남북으로 구획하는 四方面이 출현하였다. 里는 자연촌 수개 촌을 묶은 지역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큰 규모의 里가 분해되어 개별자연촌락인 里로 확정되고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한 소촌은 대촌에 흡수되거나 병합되어 里로 편제되어 가가 시작했다.¹⁴⁾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방위면 밑에 있던 里가 새로운 면으로 등장하면서 방위면이 각기 몇 개의 면으로 세분화되고 지역명칭이 붙은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면리제가 정착함에 따라 면리가 새로운 징세, 부역, 진휼, 재상, 향임 임명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면임, 풍헌은 이같은 수취, 행정업무 이외에도 권농, 치안, 풍속규찰의 업무까지 지녔으므로 마을의 운영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한을 지닐 수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사족지배질서와 갈등을 일으켰다. 국가는 면리제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군현통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지역세력에 의한 행정구역 구분이 면리를 통해 재편됨으로써 이같은 제도 운영이 합리성을 띠게 되고, 국가권력의 침투가 보다 용이하고 강력하여졌다.

한편으로 이같은 면리구획은 微稅나 호구관리를 세분화함으로써 사실상 수세액을 늘리는 기능도 하였다. 그래서 면리구획과 함께 대읍을 분리하여 신읍을 세우거나 중소읍의 읍세를 신장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里도 이전과 같은 지역촌이 아니라 자연촌으로 기능하게 됨으로써 자연촌락 단위의 행정이 가능하여졌다. 이 역시 이전의 행정촌으로서의 里 운영에 비해 지역주민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지방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里의 운영이나 촌락 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평가는 조선전기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의 면리제의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적 기준으로 보면 이같은 행정구조는 전근대의 행정구조가 지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촌으로서의 里의 성장과 면리제의 성립, 다음의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양안을 통한 지방행정제도의 연구는 이같은 한

14) 金俊亨, <조선후기 면리제의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계를 극복하고 면리제와 촌락이 내부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양안을 이용하여 진천의 面界를 복원해 본 결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로 남변면과 북변면의 존재형태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조선시대의 면은 오늘날의 면의 1/2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상당히 유사한 경계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제법 된다. 이것은 조선시대 - 한말의 행정구역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특히 면의 하부단위의 경우, 이때는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으로서의 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字丁 단위로 묶인 지역을 보면 대체로 현재의 里界의 범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연촌으로서의 里와 주변 지역이 자연적인 지형과 생활권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형태도 지니고 있다.¹⁵⁾ 대표적인 경우가 남변면과 북변면의 존재형태이다. 두 면은 명칭상으로도 조선전기의 사방면의 유제를 보인다. 그러나 면의 형태로 보면 이미 사방면과는 관계가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오히려 크게 문제시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두 면의 면계를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진천은 읍내를 중심으로 백곡천이 좌우로 흘러 자연적으로 남북 경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변, 남변, 행정면이 모두 백곡천이 아닌 백곡천 남북단의 평야지대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백곡천 남단 현재의 진천읍 벽암리 강변인 ‘連三坪’¹⁶⁾은 남변, 북변, 행정면으

15)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 한말의 행정구역의 불완전성이라면 견아처, 월경지의 존재, 행정구역의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14년의 지방행정제도 개혁에서 부분적으로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극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안으로 통해 보면 견아처나 월경지의 존재는 극히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말까지도 이런 지역들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미 과거의 유제로서 그 비중으로 보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견아처의 해소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근대적 행정구역 개혁의 지표로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금껏 이 부분을 중시한 것은 현상적인 지표에 집착한 면이 없지 않다.

16) 연삼평이라는 지명도 지주 셋이 들을 다 차지한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하나의 들이 세 개의 면에 걸

로 3분되었다.

이러한 것이 면의 분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같은 불균이 발생한 원인은 역시 특정 향촌세력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특히 남변면과 북변면은 邑治를 둘러싸고 있어 읍의 경영과 민감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궁방전과 관둔전도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토지나 인구가 읍의 경영, 혹은 읍의 운영층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정들이 연삼들 분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지역 외에 자연경계와 구획을 달리하는 지역으로서는 평산리 지역을 들 수 있다.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을 흐르는 미호천은 현재의 초평면과 문백면의 경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한말의 경계를 보면 남북으로 흐르는 미호천 상단 부분은 과거에도 문방면과 초평면의 경계가 된다. 그런데 한말에는 미호천이 'ㄴ'자로 꺾이는 연담리 부분에서는 미호천을 경계로 하지 않고 경계가 배티를 기점으로 하여 미호천 위쪽에서 평행하여 지나고 있다. 그리하여 미호천변 평사마을은 문방면에 속하고, 그 남단 여울가의 갈궁저리, 도룡골, 반탄은 백락면에 속하는 기형적 형태가 되었다.



한편 전천군 면의 규모를 보면 진천읍 동쪽의 면들은 남·북변면의 경우와는 달리 비교적 균일하게 편제된 대신 남북변면을 제외한 기타 면들에 비해 소규모로 편제된 특징을 보여 준다. 덕문면, 방동면, 소담면, 산정면은 서쪽과 북쪽의 면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 현재의 지역으로 보아도 이곳은 2-3개 리를 합한 지역에 불과하다. 더욱이 덕문면은 지명도 17개 밖에 되지 않는다.

토지로 보면 이곡면, 월천면, 만승면이 600~700 정보의 규모를 이루고, 인구는 500~800호에 달함에 비해 이곳은 500정보 정도이고 인구는 더 작아 방동면이 250호 정도, 나머지는 200호 미만이다. 결국 이같은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의 면을 4분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왜 굳이 4분 하였는가가 의문이다. 이곳의 면은 4분이 아닌 3분할로 구성하였다면 지역의 크기나 호수, 토지규모가 만승, 이곡, 월촌면과 근사하였을 것이다.

이 지역을 분할하여야 할 특별한 지형적 요인도 없고, 4면의 규모가 극히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구성이 지방세력의 이해관

쳐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진천군지』 626, 637쪽)

계에 의한 것인지 반대로, 국가에서 통치력 강화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분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이 작은 지역으로 균일하게 세분된 것으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17세기 이후 국가에서 추진해 온 면리제 강화를 통한 통치체제 강화라는 요소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3) 리와 하부행정 단위의 구조와 특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안 상으로 볼 때 행정촌으로서의 리의 정체성은 매우 애매하고 불확실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의 지배력이 하부구조까지 침투하지 못했다거나 사족, 토호, 향리층 같은 지방세력이 강력하거나, 혹은 촌락의 공동체적 관계가 강고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적어도 광무양안 단계에서 리는 이미 사족이나 지방세력의 세력범위와는 거리가 먼 자연촌락을 단위로 한 행정구역망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은 크게 두가지 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으로서의 리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행정구역으로서의 리는 오늘날과 같은 명확한 행정구역을 지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중심이 되는 자연촌락을 중심으로 주변 촌락을 관할하는 구조를 지녔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운영의 기준단위이며, 행정구역으로서 확고한 기능과 효용성을 지닌 면과 달리 행정촌으로서의 리를 이용하는 업무가 확고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에서도 행정이나 수취업무가 때로는 리 단위, 자연촌락 단위, 가호, 인정 단위의 업무로 수시로 바뀌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안의 경우를 보아도 양안의 기재방식과 전결 통계방식을 보면 면 단위로는 확고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 외 지도나 지리지에서의 전결과 여러 통계도 다 면을 최하 단위로 중시한다.

하지만 그 하부단위에서 행정촌으로서의 리는 적어도 양안 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제대로 표기도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양안 상에서 최하부 단위는 字丁이었기 때문이다. 토지와 수취업무에서 字丁 구성은 일종의 행정구역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즉 里任, 統正들은 里(洞)에 거주하면서 字丁을 참조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행정촌으로서의 리는 양안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별다른 중요성을 보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字丁은 너무나 작은 단위이므로 행정구역으로 기능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토지과약이나 수취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역의 범주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촌락 혹은 보다 세분화된 지역단위의 행정구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양안의 지명을 재 검토해 보았다.

양안에 기재한 지명을 보면 현존하는 지명보다 무척 세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17)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상술하고자 한다.

18) 이런 경우는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진천읍 행정리 내동은 안터, 안골, 도람말, 주막거리 등이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 마을 규모가 작았고 인구밀도가 희박했던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현지 답사를 해 보면 사실상 한 마을로 생각되는 지역이 별개의 洞이나 지명으로 구분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양안에서는 자연지명이라기 보다는 양안에 기재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명으로 보이는 지명들이 있다. 대표적인 지명이 앞 장에서 살펴본 ○○垌과 같은 지명이다. 그 외에 家後坪, 亭子坪, ‘~前坪’, ‘~後坪’ 같은 지명들은 일반적인 지명이라기 보다는 양안의 기재를 위해 만들어 붙인 지명이라는 인상이 든다.

진천 양안의 경우는 특별히 ‘~上坪’, ‘~下坪’, ‘~前坪’, ‘~後坪’, 등으로 표기된 지명이 많다.

표 5 진천 양안에 등장하는 평야 명칭 분포

구분	계	~上坪	~下坪	~前坪	~後坪
개수	233	17	38	143	35

이같은 표현은 전체 지명의 약17%에 해당한다. ‘~前坪’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촌락의 입지로는 배산임수형이 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평야, 골짜기의 지명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上下前後’의 명칭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 지는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지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로 문백면 銀城(은재)의 사례가 있는데, 마을에서 전면에 위치한 남쪽들을 전평, 야산 너머 뒤편에 있는 들을 후평이라고 했고, 후평에서 다시 산곡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후상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문백면 평산리 梨峙(배티)은 동쪽, 남쪽이 모두 야산이고 평야는 서쪽과 서북쪽에만 있는데, 양안의 기재가 梨峙 - 梨峙前坪 순인 것으로 보아 梨峙前坪은 서쪽 평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후는 사방위나 혹은 읍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세에 따라 적절히 붙였다고 판단된다.

물론 덕산면 석현리의 선옥 앞골,¹⁹⁾ 이월면 사곡리의 배일 앞들²⁰⁾ 등, 이같은 표현이 현재도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또 그 지역에서 고유명사화하지는 않았어도 앞들, 뒷들이라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양안에 표기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같은 충청도에 있는 충주군의 사례로 보면 이같은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 역시 이러한 표현이 자연지명이라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창조해 낸 지명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실제로 지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들이나 골, 기타 자연지형을 표현하는 지명은 매우

합쳐진 마을이다. 중리마을은 상리, 중리, 하리로 구분되었고, 이는 양안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양안을 보면 지명은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지명이 세분화되는 데는 酒店, 店 등을 독립적으로 표기한 원인도 크다. 이런 곳은 장양리의 대막거리, 지암리의 낫점과 사송리의 점말처럼 오늘날까지 마을명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도 있지만, 규모가 지극히 작은 곳도 있다. 그런 사례로 만송면의 沙器店谷을 들 수 있다. 이곳은 만송면 구암리 무술 근처에 있던 곳이다. 현재 무술 근처에서 가마터가 발견되었고, 이곳이 비록 산길이지만 진천에서 죽산으로 가던 교통로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곳에 沙器店이 있고 약간의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 같다. 이곳은 필지수가 10개에 불과하고 전체 면적도 0.434결에 불과하다. 한말에는 인구밀도가 낮고 취락도 소규모였으므로 이처럼 소규모의 부락들이 존재했고, 특히 상업을 영위하는 酒店이나 기타 店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19) 『문화유적분포지도』 圖음성42, p.65.

20) 『위의 책』 圖 진천48, p.61.

다양하다. 일례로 이월면 장양리 일영마을의 경우 일영 부근의 들판에 대한 명칭이 녹두샘 들, 더대, 설흔마지기들, 여수해, 여수해샘 등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양안 옛는 이러한 지명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日永坪, 日永洞坪, 日永前坪이라는 표기만 사용하였다. 물론 녹두샘들 같은 명칭이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명의 연속성을 보아도 당시에 이런 다양한 지명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처럼 양안에 기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지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지명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양안을 검토하면 이런 지명의 사용에서는 상당한 엄밀성과 정확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동면 方洞前坪의 경우 壹字丁에서는 ‘方等底坪’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작성자가 한자를 제대로 모르거나 前坪의 의미를 몰랐다는 말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동전평’을 발음대로 혹은 들은대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방동전평이라는 지명이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같은 지명이 서로 다른 자정에 기재될 경우, 그 작성자가 각기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澄字丁에서는 周牛坪으로 표기된 것이 그 다음의 取字丁에서는 走牛坪으로 표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작성자가 각기 들은 대로 지명을 표기하다 벌어진 실수라고 생각된다. 또 필체를 보아도 여러 사람의 필체가 섞여 있다.

그런데 ‘~前坪’, ‘~後坪’ 같은 경우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명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었다. 여러 사람이 자의적으로 기록하였다면 ‘~前坪’, ‘~後坪’, ‘~上坪’ 등에서 혼돈이 올 가능성이 높는데, 그런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前坪’, ‘~後坪’ 등의 표현이 일반적인 지명은 아니었어도 자의적으로 붙인 지명은 아니고, 당시 사람들 혹은 최소한 행정담당자들은 고유한 지명 외에도 이러한 지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前坪’ 같은 표기는 당시의 자연지명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字丁과 里任 등이 감당하는 관할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던 표기법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골짜기나 산간지대에서는 무난하겠지만 들이나 경작지가 많은 지역에서 자연지명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표기가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직 양안의 기재를 위해 자의적으로 붙인 표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이런 표현이 일관되게 통용되고 있고, 앞서 ‘方等底坪’이라는 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용어가 구전으로도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명이 지역주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립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의 조세수취나 호구관리의 필요에 의해 구획되고 탄생한 경우도 많으며, 이것이 일상적인 지명과 함께 쓰이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역이 아닌 평야나 계곡에 이런 지명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의 국가통치 조직과 체제가 그만큼 일상생활과 문화에 까지 깊이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양안 및 그것에 기초한 하부 행정단위의 운영이 상당한 엄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대적 의미에서 보면 이같은 방식이 지니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같은 지명표기와 사용은 해당 지역의 향리와 주민들에게서는 높은 인식도와 엄밀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여도 중앙정부나 지방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명표기로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또한 충주군 양안에서는 이런 지명이 진천만큼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지역별로 차이도 크고 기준도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조세수

취에서 향리들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던 사정은 이같은 지명의 표기와 운영에서도 나타난다고 하겠다.

게다가 이같은 지명은 아무래도 용도가 향리들에 의한 지방행정운영과 관리에 치중됨으로써 일반주민의 생활이나 정서와는 괴리하고, 실생활에서 두 개의 지명이 혼용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행정운영, 字丁에 기초하는 조세와 토지관리 상의 지명이나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17세기 이래 추진해 온 면의 분할을 통한 국가통치체제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이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근대 행정제도의 특징인 地番제도의 도입이다. 지번제도의 도입은 지적도 작성과 토지제도의 개혁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지방행정망에 있어서도 里, 坪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개관적인 파악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번제도의 도입에 의해 洞里 단위의 행정이 강화되면서 里를 병합하여 광역의 里가 만들어졌다. 광역화한 里制의 등장은 다시 면을 통합하여 광역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1914년 지방제도 개혁 이후 우리의 지방제도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발전해 왔다.

물론 일제에 의해 시행한 里制의 구성과 면의 광역화가 과연 지번제에 기초한 가장 합리적인 개혁방향이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²¹⁾ 그러나 지번제가 지니는 본래적 의미와 일제의 식민지배를 위한 개혁의도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²²⁾

4. 결 론

1901년에 작성된 광무 양안에 등장하는 진천군의 지명을 토대로 면과 里의 경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면리제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면

21) 염인호, <일제하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조선면제’의 형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3, 손정목, 「日帝侵略初期 地方行政制度와 行政區域에 관한 研究」, 『서울시립대논문집』 17, 1983.12, 이정은, <日帝의 地方統治體制 수립과 그 성격>, 『독립운동사연구』 6, 1992.12, 김익한, <1910년대 일제의 지방 지배정책>, 《사회와 역사》 50, 한국사회사학회, 1996.12 ; 김익한, <일제의 초기 식민통치와 사회구조변화>, 《일제식민통치연구1 : 1905 ~ 1919》, 백산서당, 1999.

일반적으로 일제에 의한 면리제 개혁은 과거 군단위로 파악되던 국가행정력을 면 단위로 바꾸고 이를 통해 일제의 국가지배를 더욱 강고히 하려는 수단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일제의 면리제 개혁에 의해 전래의 면리, 동 단위의 전통적 자치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익한)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조선의 군현지배가 지니는 전근대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조선의 국가행정력은 군 단위로 제한되고 그 이하 면리조직을 지방세력의 세력권 혹은 자치적 구역으로 이해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혹은 면까지를 국가, 里 단위를 자율적 조직으로 보기도 한다) 일제의 면리개혁이 식민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조선시대 내내 이루어진 면리제 개혁과 운영이 지니는 국가적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22) 일제에 의한 근대화는 전근대적 제도와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 그 위에 근대적 외피를 강제함으로써 근대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강압적인 통치력과 수취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지방제도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발견된다. 양안을 통해 보면 字丁에 기초한 행정체제는 자연촌락인 里와 주변 들과 주변의 작은 촌, 골, 店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시행된 里制는 보다 광역화하고 순수행정구역화한 의미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里에 기초한 생활권 및 행정권 위에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地番制와 里制의 결합은 근대적 제도와 구래의 자연촌락과 행정체제가 결합하여 제도 본래의 목적보다는 대민통제와 수탈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지역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대에서 진행된 지번제의 도입과 면계의 광역화와 합리화도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리의 경계에 대한 복원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며, 지금껏 토지제도사 연구에서만 사용되던 양안을 사회사 및 지역사 연구 영역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진천군의 면리경계를 복원한 결과, 면의 경계는 비교적 합리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변면과 남변면, 미호천 연변의 문백면 경계처럼 자연경계를 무시한 특이한 경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전근대적 형태의 잔상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군현 행정의 최하부 단위인 里였다. 洞里의 명칭을 볼 때 里는 행정촌으로서 里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촌에서 里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촌과 무관한 지역에서 里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洞의 경우는 작고, 산곡지역에 많이 분포하나 이 역시 예외적인 경우가 제법 있다. 이상의 사실은 행정촌으로서의 里가 상당히 정착하였으나 1901년 당시까지도 아직 법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체제로 정착하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그같은 원인은 행정구역으로서의 里가 경계나 업무, 이용도에서 일관된 기준과 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양안에서 그런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요한 기준 단위가 되는 面은 분명한 기준으로 자리잡은 반면 양안에서는 里 보다는 字丁과 보다 광역으로서 ‘~前坪’, ‘~上坪’ 등 양안표기를 위한 지명이 하부 단위가 되어 있다. 그러나 ‘~前坪’, ‘~上坪’ 등의 명칭은 단지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지명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국가행정력의 수준과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일관성과 법칙성이 부족하고, 지역차가 커서 지역 파악을 위해서는 향리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근대적 地番制에 비교된다고 하겠다.